

1 개요

버들남본은 땅귀신이 버드나무를 싫어하는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처녀가 땅귀신에게 잡혀갔으나 기지를 발휘하여 땅귀신을 죽이고 보화를 얻어 부자로 살았다.

2 내용

옛날 어떤 홀아비가 딸 삼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다. 딸들이 장성하자 가난해서 살기 어려우니 산으로 올라가 땘나무를 해다가 팔아 생활하였다. 하루는 백발노인이 나타나 천금을 주면서 큰딸을 주면 부잣집 맘느리로 중매해주겠다고 하고 큰딸을 데려갔다. 백발노인은 큰딸을 깊은 산골 좋은 집으로 데려갔다. 백발노인은 약속과 달리 큰딸을 소실로 삼았다. 그리고는 사람 다리뼈를 주면서 3일만에 먹으라고 하고 어디론가 떠났다.

큰딸은 눈물로 지새다가 마룻널을 열어 다리뼈를 감추었다. 노인이 돌아와서 “다리야!”하고 부르니 마룻널 아래서 대답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큰딸을 죽이고 말았다. 노인은 다시 홀아비에게 가서 언니를 보러 가자며 둘째딸을 데려왔다. 노인은 둘째딸도 말을 듣지 않자 죽여버렸다. 그리고 다시 가서 거짓말로 속여 막내딸을 데려왔다. 노인은 막내딸에게 사람다리를 주면서 9일만에 먹으라고 하였다. 막내딸은 먹겠다고 하고 백발노인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노인이 생달같이 싫고,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가 싫다고 하였다.

노인이 집을 나가니 막내딸은 사람다리를 구워 손바닥만큼 만들고 포대기에 싸서 배에 찼다. 열흘 뒤에 노인이 와서 “다리야!” 부르니 막내딸의 배에서 대답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안심하니 막내딸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노인은 땅귀신 지귀라고 하였다.

막내딸이 달걀과 버드나무 가지를 싫어하는 이유를 묻자 노인이 자세히 일려주었다. 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도실나무도 싫다고 하였다. 막내딸은 소변을 보러가는 척하면서 준비해둔 달걀과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노인을 제압하였다. 막내딸은 두 언니의 시체를 찾아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고하였다. 언니들을 매장해 놓고 버드나무와 도실나무로 아름 가득 들고 노인의 집으로 갔다.

노인이 일어나려 하고 있으니 버드나무와 도실나무로 백대를 쳐서 죽이고 석상에 끌어다 놓고 돌멩이로 쳐서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렸다. 집안을 조사하니 금과 옥이 많아 그것을 가져다가 큰 부자로 살았다.

③ 특징

땅귀신이 처녀를 데려다가 사람 다리를 먹게 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시험하기를 거듭하면서 많은 처녀를 죽였는데, 똑똑한 처녀가 땅귀신의 약점을 알아내고 죽음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부자가 되었다.

다른 영웅적인 존재의 도움 없이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 이야기는 이장 풍습과 관련된 전승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④ 핵심어

홀아비, 삼형제, 백발노장, 땅귀신, 지귀, 사람다리, 버드나무, 도실나무, 생달갈

⑤ 원전 서지사항

버들남본(문창헌, 《풍속무음(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⑥ 관련 자료

삼두구미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